

學生相談制度의 활성화

李 延 燮

(中央大 幼兒敎育科)

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제도에 관해서 필자는 할 말이 없다. 대학생들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들에게 상담을 해줄 만큼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실정이 대학 졸업생의 직장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며, 또한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하에서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도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대학에 들어온 뒤에 전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학문적인 의구심이나 성격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개인의 적응 능력이나 가정의 보살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다는 것은 입처사에 불과할런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목이 필자에게 주어진 것은 필자가 1960년대에 카운셀링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에서 마쳤으며 외국에서 아동·청소년 심리를 몇 해 강의해 온 경험에 터하여, 학생상담 서비스의 일반적인 느낌을 적어 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물론 필자보다 이 제목으로 글을 쓸 적합한 분이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때로는 직접 상담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옆에서 어

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쓸 만한 말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상담심리학이 들어온 뒤 관심의 초점이 정신질환적 사례에 주어져서 신경증 환자나 소수의 정신병리학 적 장애에 관심을 두었다고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상담심리학이 임상심리학으로 동일시되는 감도 있었다. 상담은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학생들에게 교육적, 개인적 및 직업적 서어비스 활동을 통하여 도움을 줄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전문적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이 세 가지 즉 교육적, 개인적, 직업적 서어비스는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전국에 어느 대학에서 전과가 가능한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자일 것이다. 따라서 입학 당시에 눈치작전 속에서 자기 점수에 맞는 과가 선택되면 그것으로 그 학생의 앞길이 운명지워지는 움직일 수 없는 진로 선택이 된다. 한때 계열별 모집을 시도한 실험대학제도가 있었으나 이제 실패로 끝나고 과 중심으로 되돌아갔으며 이수학점을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여 대학 경영에 도움을 준 정도인 것 같다. 자기의 소신대

로 끝까지 밀고 나가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좌절과 운명론적인 적응을 강요받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이 자기가 속한 과와 동일시하지 않으며 나아가 소속대학을 멀리하는 소외현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재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다.

개인적, 정서적 문제도 심각하다. 어느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의 25% 정도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신경증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필자가 짐작하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받는 1년간의 스트레스는 그 강도가 심하여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적응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고 3이 되면 공부 자체에 재적응하게 되고, 먹는 습관에도 변화가 오며,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오고 잠자는 습관도 달라진다. 사회적 활동에도 제한을 받고, 방학도 괴로우며, 부모의 기대와 상충할 수 있고 개인습관에 변화가 오며, 학관 또는 보충수업에 나가야 하며, 책임이 달라지는 등 대입과 관련된 스트레스 속에서 초조, 우울, 수동적인 게으름, 심박의 증가, 입이 마르는 현상, 충동적 행동, 도망가고 싶은 충동,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사고가 비약하는 현상, 일부터 피로해지기를 바라며 막연한 두려움, 고조된 감정, 신경성 경련, 불면증, 이유 없이 서성대며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자주 봄, 소화불량, 편두통, 여학생일 경우 월경불순, 목과 허리에 통증, 과식 또는 결식, 흡연의 증가, 약물의 이용, 악몽 등 많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학생이 이 모든 증상을 다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의 몇 개씩은 대체로 다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급작스런 해방감과 고등학교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 자율 등에 오히려 당황하고, 이런 점에서 문화적 충격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경험한다. 대체로 대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이 충격에 희생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뭘 해야죠?”라는 질문을 많은 교수들이 받아 보았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상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진 사례

를 아직 보지를 못하였다. 대학마다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나 대개는 학과 소개와 교수 소개 또는 피상적인 대학생활에 관한 강연 등이 고작이며, 각 학생의 내부에 잠겨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쓰다듬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고학년 학생들의 현실 참여 문제와 그에 따른 대학의 대처방안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학마다 학생생활연구소 또는 비슷한 이름의 연구기관이 있지만 대개는 교수 1인에 조교 한 두 명의 멘파워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팔들렛에 나오는 조직상의 구성효과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소수학생에 제한된다.

직업정치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학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얼마간의 차이는 있으나 너무나 뻔한 현실 속에서 직업정치 활동의 중심인 선택이라는 말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필자가 속해 있는 사범대학만 하더라도 과에 따라 단 한 명도 취직이 안 되는 과도 있다. 음대, 미대도 취직의 문은 좁다. 의대도 생각보다도 훨씬 좁은 문이다. 인턴, 레지던트의 경쟁이 치열하며 법관의 임용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정치 활동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더우기 일반적으로 과별 교수의 수가 4명 내외로 학부와 대학원, 특수대학원까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교수의 역할은 극도로 제한된다.

대학생들의 가장 피로운 문제는 무엇일까? 정확한 조사는 알 길이 없으나 필자가 느낀 바로는 먼저 졸업할 때까지의 경제적 뒷받침이다.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났다.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고 하였더니 500원이라고 한다. 하루에 5시간 일을 하여 받는 돈이 2,500원이다. 필자가 느낀 순간적인 분노를 읽으시는 분도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우유를 배달하고 한달에 받는 돈은 5~6만 원선의 대학생도 있다. 가정교사가 없어진 뒤 대학생의 부업은 그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학업의 문제도 중요하다. 대학사회는 근본적으로 치료적인 사회가 아니다. 쉬라는 곳이 아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 압력사회이다. 따라

서 학업에서 오는 압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입학할 때의 경쟁과 대학원에서의 경쟁, 직장에서의 경쟁 등과 같은 학업 성취 압력이 많은 정서적 부적응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고 그것은 다시 개인 문제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또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더 깊고 어려운 불안으로 빠지게 된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 안 되며 시험때가 되면 불안감이 더해지며 틴 페이지도 불안의 요인이 된다. 남처럼 즐기고 싶은 선망은 개인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근래에 와서 두드러진 현상은 학생 사이의 빈부 차이이다. 로얄 살롱을 몰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하숙비 마련에 쪼들려 있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속에서 오는 위화감도 작은 것은 아닐 것이다.

동료집단 사이에서 오는 압력과 거기서 생겨나는 가치관의 갈등 문제이다. 동료집단의 영향은 국민학교 때 시작하여 중학교까지 이어지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일단 중단이 된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동료집단은 새로운 면모를 띠게 된다. 사실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씨름활동에 더 많은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스코 클럽에서 술집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친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씨름활동과 학생회와 대학당국 사이에 있는 긴장감도 학생 지도의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장래 문제도 대학생들의 숨길 수 없는 불안요소이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다. 흔히 직장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직장은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오직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것이 불안해질 때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더욱 학생들을 짓누른다. 이 외에도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술, 성, 결혼 등의 문제가 서서히 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지금까지 별로 밝지 못한, 다 아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적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몇 가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대학의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에 대해 학문의 전당이라든가 살아탑, 지성의 요람 등 많은 표현들을 써 왔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학의 기능을 선택적, 평가적 우월성의 추구로 특징지었다. 따라서 대학생 개인의 생활에 대하여서는 대학에서 관심을 가져 오지 않았다. 그것은 작자가 해결할 문제이며 대학은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 남는 자만을 원한다는 철학에 터하여 왔다. 평가도 우수한 학생을 가려 내기 위한 제도였으며 항상 더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학교로 평가받고 보다 좋은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거기서 공부를 잘 한 학생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선택적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학생의 지적, 개인적 성장 발달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수도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다. 못 따라오면 그만두라는 운연중의 압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대학원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증상의 한 표현일 것이다.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으나 매년 3월마다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 가운데 몇 %가 과연 대학 생활이 보람이 있었으며 자신이 달라졌으며 인생관, 세계관 또는 인간관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을까? 짐작컨대 상당한 수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다. 대학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라면 단순한 지적 및 학업성취의 우월성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비지적인 면에서도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강의실이란 대체로 교과서와 칠판과 교사의 목청 그리고 얼마간의 실험실습이 교작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교실외적 학교 상황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교실외적 상황에서의 학생 생활에 대한 지도를 대학의 주요한 기능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어떻게 하면 아카데미와는 아카데미를 함께 지도할 수 있는가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부르는 청소년 문화라고 부르는 동료집단의 영향이라고 부르는 이 논아카데미 경험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몇 가지 상상이 가는 대로 논아카데미 생활의 지도를 위하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교수가 교수와 연구의 책임 외에 학생지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는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직업정보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와 재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질수록 학문적, 개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을 제도화하여 학점화함으로써 교수의 업무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정기적으로 인부할 수 있다면 아마 그 학생들이 전과는 다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접촉이 없을 때 교사-학생간의 관계는 기계적이며 물과 기름처럼 겉돌게 될 것이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주당 교수 책임시간이 9시간 이라면 6시간을 아카데미에 배정하고 3시간을 학생과의 면담으로 할당한다면 어떨까 한다. 현재도 학년마다 지도교수가 있으나 이것은 업무량 과중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없으며 과외의 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영국의 튜토리얼 시스템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교수들 자신도 학생들과 자주 접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전향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 효과는 학생과 교수 양쪽에 다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원래의 오리엔테이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신입생들이 과에 대한 동일시도 없으며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어떤 상황적 결정에 따라 들어온 학생이 많으므로 어떻게 하던 이들에게 소속감과 자아정체감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학생 하나 하나에 대한 이해와 집단 토의를 통한 자신들의 목표 설정을 돕는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3,4학년이 되어야 겨우 자기 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음을 종종 관찰할 수가 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전부는 물론 아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을 확

신시켜 주는 노력이 교수들로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는 무엇보다도 의료보험제도를 수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대학생 등록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대학생이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심한 성격장애나 정서장애는 대학 병원, 또는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서비스는 보다 가볍거나 정상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 입주용 임대 아파트를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원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최저의 가격으로 기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숙사 제도가 확립될 때 학생들의 교실외 지도활동이 강화될 수가 있다. 어떤 총장이 대학교육의 반이 기숙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의미 있는 말이다. 학생 1인당 2~3명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현재 평균 하숙비 1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임대할 수 있다면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좋고 생활지도에도 좋을 것이다. 미국의 대학에서는 residential course로 여러 교양강좌를 기숙사에 개설하여 학생들이 저녁시간에도 그 코스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 생활의 맹점의 하나인 도서관과 체육관의 확충 및 신설을 들 수 있다. 새벽 4시부터 도서관에 자리를 잡기 위하여 줄을 서는 모습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는 현상이다. 학생을 위한 공간의 결핍은 서울의 캠퍼스에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일 것이다. 학생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떠돌게 되며, 결과적으로 허송세월하는 예는 어느 캠퍼스에서나 쉽게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대학치고 체육관이 없는 대학은 찾기가 힘들다. 우리는 체육관이 있는 대학을 찾기가 더 어렵다. 좁은 대학 캠퍼스에서 쉬는 시간에 족구를 하는 학생들이나 야구, 배구, 농구 등을 하는 학생들이 좁은 공간 속에서 어울려서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 대학은 공부를 하는 학생과 운동을 하는 학생으로 양립되어 마치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

처럼 제도적으로 구별지어져 왔다. 이것도 대학의 건전한 풍토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체육시설은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학생의 상담제도 문제는 단순한 상담자와 피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적인 풍토 속에서 다루어

져야 할 문제이다. 학생에 대한 적어미스를 대학의 부수기능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 주기능의 하나도 생각하는 태도의 변화와 함께 모든 교수가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자생적 학생 활동의 육성 등이 함께 할 때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는 제 자리를 찾으면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일 것이다.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마치 참새와 다람쥐처럼 한 곳에 같이 있어 서로 만남이 없다면 대학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하겠다. *